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①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 상담통계 ①

21 · 특집 ② | 다문화가정 상담통계

22 · 특집 ③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 소송구조 사건 분석 ①

29 · 특별기고 | 법률지원과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이스라엘과의 협력

30 · 가정폭력상담실

31 · 어떻게 할까요

32 · 좋은 책

거리의 언어학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6 · 소송구조

· 원고 넘쳐 ‘기획연재’와 ‘어떻게 할까요 - 가정법률상담 사례’는 쉽니다.

· 결혼과 인생 - 만화일기는 작가 사정으로 쉽니다.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누하동 꽃사과나무〉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

가족, 가정의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할 때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이처럼 적절할 때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3월은 추운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때이지만 학교마다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 기대와 신입생들의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해 말 그대로 희망과 기대가 부푸는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기가 일 년을 훌쩍 넘어가면서 우리는 비대면과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말이 너무 익숙해진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이 안타까운 시간 속에서도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소 또한 2020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정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2020년의 통계에서 일단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전체 통계의 변화입니다. 2019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상담소 전 지부들과의 관계가 본부와 지부에서 업무협력기관 관계로 발전적으로 변화하면서 상담통계 또한 상담소만의 것으로 단일한 집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 면접상담을 일시 중단했던 시기가 근 3개월여에 이르면서 전체적

인 상담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면접상담을 하지 못했던 시기에 비하면 면접상담이 재개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묵혀두었던 가정문제가 폭발한다는 생각들이 정도로 상담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양상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부부,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세계적으로 이혼이 증가 추세인데 비해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시각도 보이고 있지만 상담현장에서 보는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혼상담의 비율이 2019년 25.3%에서 2020년 29.0%로 증가하여 부부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과 마찰의 요인들이 터져 나오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고, 전체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에서 수 년 간 1위에 있던 기타사유가 2위로 밀려나고 남편의 부당대우(폭력)이 1위를 차지함으로써 부부 폭력의 문제가 더 많이 구체화,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남성의 이혼상담 사유 가운데 세 번째가 아내의 폭력이라는 점 또한 가정폭력의 심화라는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노년 이혼의 문제가 여전히 아니 점점 더 심각한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성, 남성 모두 60대 이상의 이혼 상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2000년도에는 4.9%였던 것이 2020년에는 22.3%를 기록하였고 남성은 2000년에는 5.2%였던 것이 2020년에는 무려 43.5%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내담자들은 남녀 모두 빈곤과 무시, 소외감, 고립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2017년 처음으로 2,000만 가구를 넘었고 2018년 통계로 2,049만 가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보다 가구 수 증가가 이렇듯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1인 혹은 2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져 55.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핵가족의 기준이었던 4인 가구는 18%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이하

게도 1인 가구의 경우 도시 보다 읍, 면 지역에 더 많아 농촌 지역에 홀몸 노인 가구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도 이들 대부분은 가족이 있고 가족구성원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가정, 가족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에 변화를 가져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혼자 사는 노년도, 노인 부부도 그리고 독립생활을 영위하는 비혼의 자녀도 가정문제로 상담소를 찾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으로 반세기 넘어 두 세대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의 내밀한 가정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만 최근처럼 급격한 가정의 변화와 그 내용은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가족정책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소가 이러한진대 국민들은 더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정부가 우리의 인구문제, 가족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적절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족구성원을 지키고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정부가 가장 우선할 일은 이러한 각 가정의 문제, 가족구성원의 고민과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법입니다. 일상을 영위하기 힘든 시기이지만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와 정부가, 정책 당국이 현실적으로 무너져가는 가정과 그 안에서 고통 받는 가족구성원들을 절망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를 신뢰하고 앞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마음을 다해 기원해 봅니다.

부디 건강한 봄날 되시기를 빕니다.

특집 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 상담통계 ①

이혼상담 비율 2019년 25.3%에서 2020년 29.0%로 증가

재방문 비율 90.9%로 높아

- 자녀 어릴 때 상담 왔으나 그냥 살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오기도

60대 이상 남녀 이혼상담 비율 급격히 증가 추세 여전해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총 62,997건을 상담하였다.

62,997건을 상담처리별로 분석하면, 법률상담 58,438건, 화해조정 2,848건, 소장 등 서류작성 696건, 소송구조 1,015건이었다. 한편, 상담방법별로 분석하면, 면접상담 14,599건, 전화상담 46,753건, 인터넷상담 1,580건, 서신상담 3건, 지상상담 13건, 순회상담 49건이었다.

면접상담은 총 14,599건이었다. 사건내용은 크게 가사·민사·형사로 분류하는데, 가사사건이 13,756건으로 면접상담의 94.2%를 차지하였으며, 민사사건이 757건(5.2%), 형사사건이 86건(0.6%)이었다.

이혼상담 분석

총 4,239건

여성내담자 3,260명(76.9%)

남성내담자 979명(23.1%)

상담소에서는 총 4,239건의 이혼상담을 진행하였다. 이 중 여성내담자는 3,260명이었고, 남성내담자는 979명이었다.

● 여성 최고령자의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여성 91세 / 상대자 남성 94세)

애들 어릴 때 외도하는 남편에게 맞아 상담소를 찾아갔었다. 그러나 이혼하면 애들이 거지될 것 같아 참고 살았다. 남편은 평생 외도를 했고 현재는 딸과 동갑인 여자와 외도 중이다. 바람도 병이다. 남편은 90대 중반인데 여전히 정정하다. 연금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펄펄 쓰고 다니니 여자들이 좋아한다. 애들도 그냥 그러려니 한다. 엇그제도 맞았다. 이 제껏 참고 살아온 내가 불쌍하다. 살자니 고생이고 이제와 안 살자니 창피하다. 이 나이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 남성 최고령자의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남성 92세 / 상대자 여성 80세)

사별 후 27년 전 재혼하였다. 재혼 후 상대가 졸라 내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한 건을 상대 명의로 해 주었다. 생활비는 내가 가지고 있던 돈과 내 자녀들이 주는 돈으로 감당했다. 그런데 최근 상대가 치매에 걸려 나를 못살게 한다. 병원 치료도 거부한 채 계속해서 포악을 부려댄다. 아직은 초기라 상대가 혼자 생활할 수 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다. 나도 고령이어서 상대를 감당할 수가 없다. 상대에게는 자녀가 없다.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혼상담 비율 2019년 25.3%에서
2020년 29.0%로 증가

코로나19로 성격차이, 경제갈등 등 부부 간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 붓물 터지듯 터져

초담 2,220건, 재담 2,019건,
재방문 비율 90.9%로 높아

자녀, 재산, 위자료 등 이혼 시 해결해야 할 사안
복잡하고 많아
자녀 어릴 때 상담 왔었으나 용기 없어
그냥 살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와

여성은 40대(32.0%),
남성은 60대 이상(43.5%)이 가장 많아

전체 여성 이혼상담 사유

- 1위 남편의 부당대우(폭력)
- 2위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빚 순)
- 3위 남편의 가출

전체 남성 이혼상담 사유

- 1위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 2위 아내의 가출
- 3위 아내의 부당대우(폭력)

여성은 '폭행당했다',
남성은 '아내가 나를 버리고 나갔다' 가장 많이 호소해

60대 이상 남녀 이혼상담 비율 급격히 증가

60대 이상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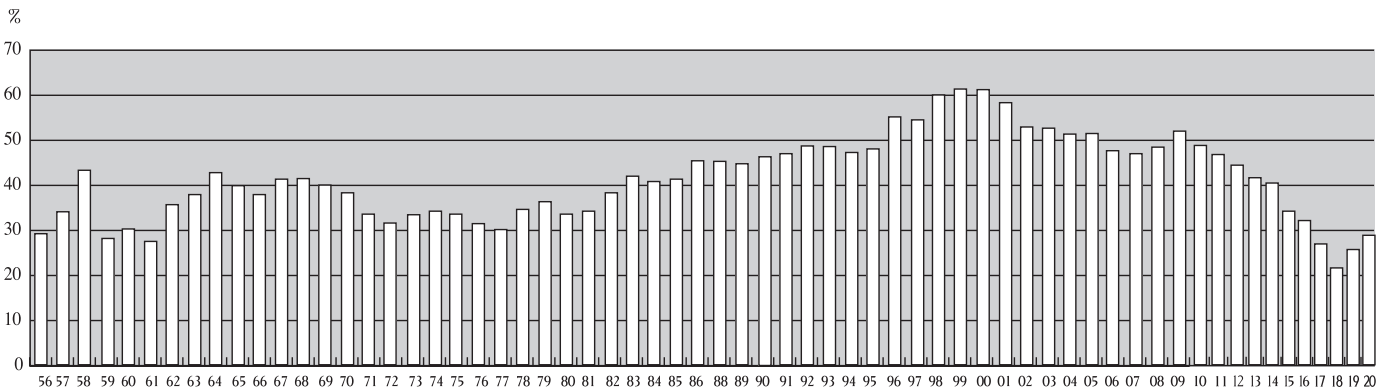
(2000년 4.9%→2010년 7.0%→2020년 22.3%)

60대 이상 남성

(2000년 5.2%→2010년 10.5%→2020년 43.5%)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3.2배, 남성은 4.1배 증가
20년 전에 비해 여성은 4.6배, 남성은 8.4배 증가)

연도별 이혼상담 비율



노년 내담자들 빈곤, 무시, 소외, 고립, 불안 호소

노년 여성

살자니 고생이고 이제 와 안 살자니 창피해
평생 참고 살아 마음에 화병 가득, 살아온 세월이 소설
남편 폭력, 외도 늙어서도 계속 되
남편은 지금도 재산 가지고 유세
자녀들도 재산 있는 아버지 편만 들어
자녀들 보고 살았는데 자녀들은 나 몰라라

노년 남성

있어도 눈치, 나가도 눈치, 코로나로 갈 곳도 없어
평생 가족 뒷바라지했는데 돈벌이 못하니 외면
한 집 살아도 남보다 못해
아내와 자녀들 폭언, 폭행 견디기 힘들어
자녀들도 엄마 편만 들어, 죽지 못해 살아
얼마 없는 재산 나누면 방 얻을 돈도 부족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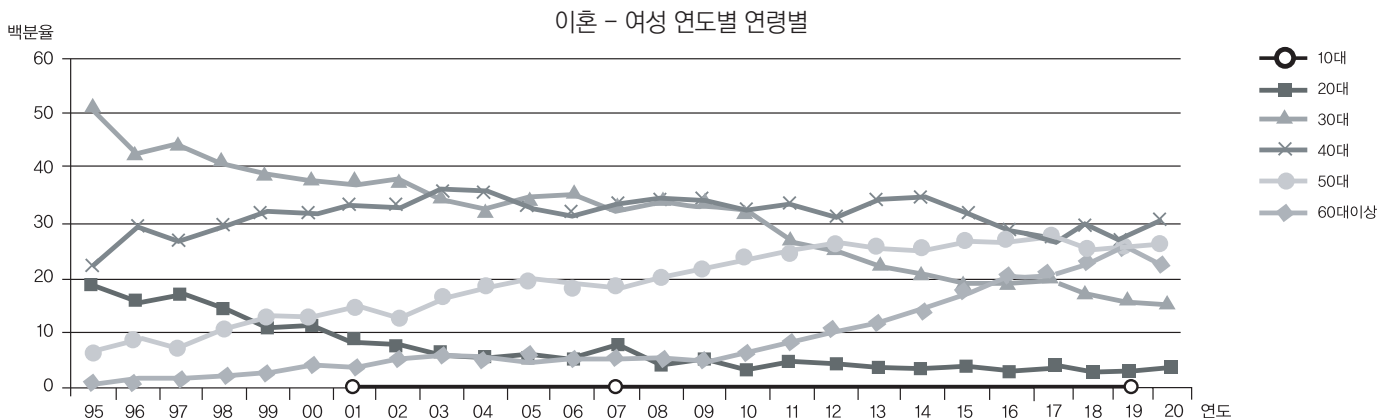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
나이차는 남편 1-2년 연상, 혼인기간은 1-11년
여성 직업은 전업주부, 남성 직업은 무직
남녀 모두 초혼,
남녀 모두 고졸의 이혼상담이 가장 많아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가장 높아

여성은 40대(1,044명, 32.0%), 50대(829명, 25.4%), 60대 이상(728명, 22.3%), 30대(511명, 15.7%), 20대(148명, 4.6%) 순으로, 남성은 60대 이상(426명, 43.5%), 50대(279명, 28.5%), 40대(193명, 19.7%), 30대(73명, 7.5%), 20대(8명, 0.8%) 순으로 나타나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 20년 전인 2000년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30대 37.9%, 40대 31.7%, 50대 13.4%, 60대 이상 4.9%). 그러나 점점 혼인시기가 늦춰지면서 10년 전인 2010년에는 40대(30대 31.7%, 40대 32.9%, 50대 24.0%, 60대 이상 7.0%)가 더 많아졌고, 2020년에도 40대가 32.0%로 가장 많아 혼인 생활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할 40대 여성들이 이혼 문제로 상담소를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대는 15.7%, 50대는 25.4%, 60대 이상은 22.3%로, 30대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이 크게 증가해 중년층과 노년층 여성이 이혼 상담을 위해 상담소를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역시 20년 전인 2000년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30대 38.4%, 40대 33.3%, 50대 17.2%, 60대 이상 5.2%). 10년 전인 2010년에도 30대(30대 31.8%, 40대 31.7%, 50대 21.2%, 60대 이상 10.5%)가 가장 많았으나 40대와 비율이 거의 같아졌다. 이후 남성은 이혼 상담을 위해 상담소를 찾는 연령대가 급격히 높아져 2016년부터는 60대 이상이 모든 연령대를 제치고 1순위로 올라섰고, 2020년에는 60대 이상이 43.5%를 기록해 거의 절반에 달하는 남성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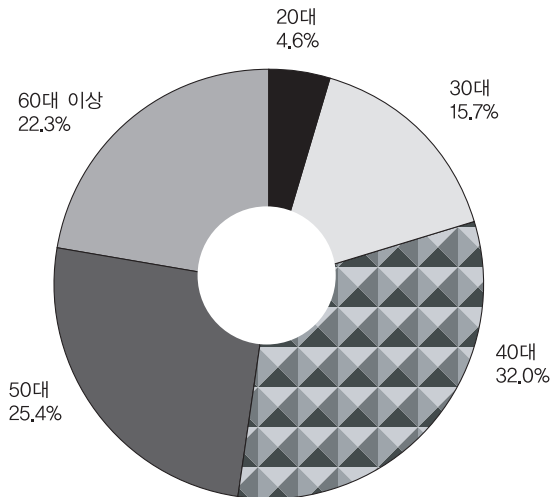
● 여성 40대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여성 40대 / 상대자 남성 40대)

남편은 은행에 다녔는데 올 초 작은 회사로 이직했다. 그런데 사정이 어려워 급여가 안 나온다고 하였다. 남편이 술을 마신 후 길에 쓰러져 있다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데려왔는데 나를 폭행한 후 칼을 꺼내 자해하려고 하였다. 너무 놀라 아이들 챙겨 친정으로 왔다. 이제 중학생, 초등학교 인 두 아이도 충격이 큰 상태인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집에는 시부모가 와 있는 상태이다. 나는 결혼하면서부터 전업주부로 지내 당장 생활도 막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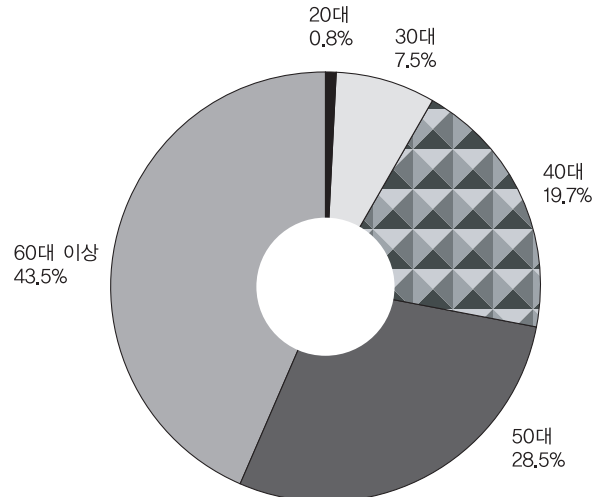
● 남성 60대 이상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남성 60대 / 상대자 여성 60대)

화물차 운전을 하며 모은 돈은 전부 아내에게 주었다. 위험한 일을 하니 만일을 대비해 집도 아내 명의로 해 주었다. 그런데 2년 전 일을 그만둔 후부터 아내와 다툼이 잦아졌다. 아내는 손녀를 본다며 딸집에 간 후 몇 달씩 오지 않았고 아이들도 오지 않았다. 내가 딸집에 간다고 해도 못 오게 하였다. 이상해서 등기를 떼 보았더니 나 모르게 7,000만원이나 용자를 받았다. 통장에 돈도 없다고 하고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한다. 분하고 억울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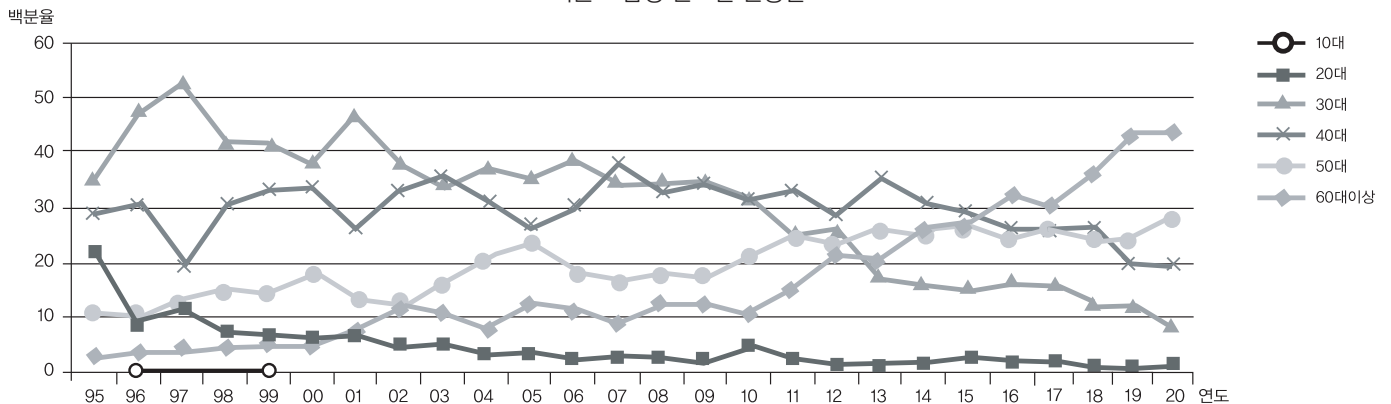
여성의 연령별 이혼상담비율



남성의 연령별 이혼상담비율



이혼 - 남성 연도별 연령별



이혼상담 사유 분석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3,260건)

- 1위 '남편의 부당대우(폭력)'
(민법 제840조 3호)(48.3%, 1,573건)
-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빚, 폭언, 알콜중독 등이 우선 순위임)(6호)(31.4%, 1,024건)
- 3위 '남편의 외도'(1호)(8.3%, 272건)

남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979건)

-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배우자의 이혼강요, 거짓말, 정신병 등이 우선 순위임)
(6호) (56.5%, 553건)
- 2위 '아내의 가출'(2호)(23.0%, 225건)
- 3위 '아내의 부당대우'(3호)(13.3%, 130건)

여성은 '폭행당했다'

남성은 '자신 버리고 나갔다' 가장 많이 호소해

여성의 이혼사유로는

'남편의 부당대우(폭력)'가 1,5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장기별거' 305건, '남편의 외도' 272건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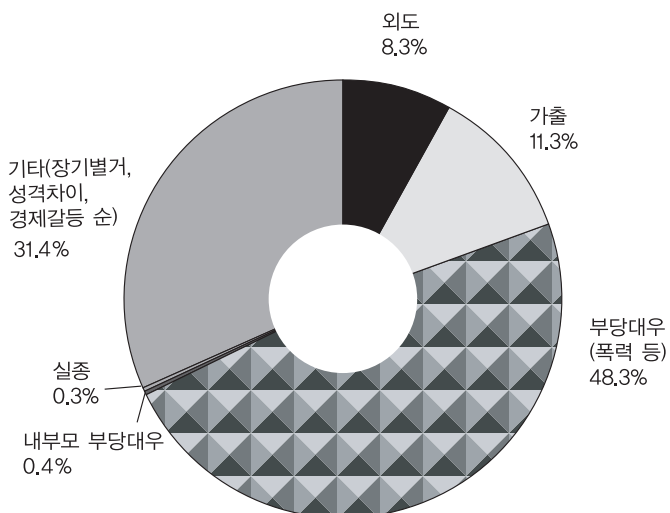
이혼 상담을 한 여성의 48.3%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해 가정 내 폭력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편의 폭력을 이혼 사유로 주장한 여성들은 2019년 31.9%에서 2020년 48.3%로 한 해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들은 코로나19로 겪게 된 우울감, 답답함, 경제적 어려움, 부동산, 주식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 여러 문제 상황에 한꺼번에 놓이게 되면서 부부 간에 그만큼 갈등이 더 많아졌고, 다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폭행까지 당하다 보니 더 이상은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상담을 해왔다.

남성의 이혼사유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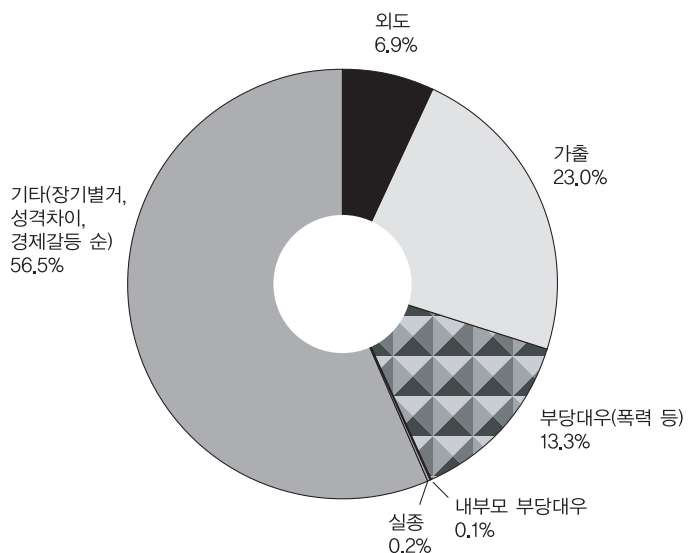
'장기별거'가 2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아내의 가출' 225건, '아내의 부당대우' 130건 순이었다.

이혼 상담을 한 남성의 51.3%(전체 979명 중 502명)가 별거나 아내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법적으로만 혼인관계에 있을 뿐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된 지 오래되었다고 호소해왔다. 특히 아내의 가출을 이혼 사유로 주장한 남성들은

여성의 이혼사유



남성의 이혼사유



2019년 15.8%에서 2020년 23.0%로 크게 증가하였다. 상담을 통해 보면 아내의 가출 전 외도나 불성실한 생활, 과도한 빚 등 다른 문제들이 먼저 갈등의 요인이 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아내가 남편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간 경우도 있어 아내가 가출하기 전 선행된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도 있었다.

● **여성 40대 이혼상담 사례 (폭력)**
(내담자 여성 40대 / 상대자 남성 40대)

남편의 폭력이 결혼 초부터 있었는데 재혼이라서, 또 아이들을 낳은 후로는 애들에게 상처주고 싶지 않아서 참고 지냈다. 그러나 갈수록 남편의 폭력이 더 심해졌고, 아이들 앞에서 자해까지 했는데도 자기가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전남편과도 폭력 때문에 이혼했다. 말만 안할 뿐 다들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혼하고 아이들을 내가 키우고 양육비를 받고 싶다.

● **남성 50대 이혼상담 사례 (가출)**
(내담자 남성 50대 / 상대자 여성 50대)

애들 9살, 7살일 때 아내가 집을 나갔고, 혼자 아이들을 키운 지 15년이 지났다. 집을 나가기 전 아내는 빚을 많이 졌는데 어디에 돈을 썼는지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번 몸싸움을 심하게 했고, 그 길로 나가 들어오지 않았다. 집을 나간 후 잘 사는 것도 아니었다.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버텨왔는데 얼마 전부터 자꾸 돈을 요구해오고 있다. 이러다 나에게 또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제는 이혼밖에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으로 상담 많아

6호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

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1,024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29.8%(30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3.1%(134건), ‘경제갈등’ 7.6%(78건), ‘빚’ 6.8%(70건), ‘폭언’ 6.4%(66건), ‘알콜중독’ 4.9%(50건), ‘생활무능력’·‘배우자의 이혼강요’ 각 3.9%(각 40건), ‘무시/모욕’ 2.7%(2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도 6호사유(총 553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50.1%(27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9.7%(109건), ‘경제갈등’·‘배우자의 이혼강요’ 각 4.2%(각 23건), ‘거짓말’ 1.8%(10건), ‘정신병’ 1.3%(7건), ‘불신’·‘전과/복역’·‘무시/모욕’ 각 1.1%(각 6건)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여성 29.8%, 남성 50.1%), ‘성격차이’(여성 13.1%, 남성 19.7%) ‘경제갈등’(여성 7.6%, 남성 4.2%)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장기별거 비율,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5.0배
남성은 5.9배 증가

생활이 어려워도 배우자 있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한부모가정 지원 등 받지 못해

기타사유인 6호사유 중 ‘장기별거’의 비율은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여성은 5.0배, 남성은 5.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6.0%→29.8%, 남성 8.5%→50.1%). 이들은 다양한 사유로 오랜 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연락을 끊은 채 사실상 이혼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을 통해 보면, 그동안 생활에 쫓겨 혼인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못하고 지냈는데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 임대주택, 한부모가정 등 일정한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은 본 상담소의 소송구조 서비스 등을 통해 서둘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40대 여성)

남편이 사소한 일로 싸우다가 10년 전 나가버렸다. 이후 2년간은 들락날락하였고 월 15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왔다. 그러다 5년 전부터는 아예 연락을 끊었고 생활비도 보내오지 않았다. 남편 앞으로 이런저런 체납고지서 등이 와 있어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는데 이후 다른 곳으로 살린 것 같다. 상대방이 아이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상대방이 신청하였고, 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작은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서류상 남편이 있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혼하고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고 싶다.

●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70대 남성)

IMF 때 빚 때문에 아내와 따로 살게 되었다. 5년 정도 별거하다 혼자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집에 찾아가 봤지만 이미 가족들은 모두 이사를 가고 없었다. 그 때 내 상황도 여의치 않아 더 이상 찾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다 보니 지금에 이르르게 되었다.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겨우겨우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최근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더니 배우자가 있어 안 된다고 하였다. 이혼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상담소 도움을 받아 이혼하고 싶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폐업 등으로
위태로운 가정 경제, 고스란히 가정불화로 이어져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경제갈등' 주장하는 이들 많아

6호사유 중 '경제갈등'의 비율은 여전히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났다(6호사유 중 여성 7.6%, 남성 4.2%). 코로나19로 인해 실직과 폐업 등이 늘어나면서 안 그래도 위태로웠던 가정 경제가 더 흔들리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는 고스란히 가정불화로 이어져 가족 구성원 모두 힘들어졌다고 상담해왔다. 특히 남성은 궁핍한 가정 경제 사정이 모두 자신의 책임인 양 자녀들 앞에서 아내가 폭언하며 무시할 때 견디기 힘들다고 하였고, 여성들은 경력이 단절된 후 그나마 접근할 수 있었던 단순노무 등의 일자리마저 없어져 생계에 위협을 받을 때 무능력한 남편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다고 호소해왔다.

●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30대 여성)

혼인한 지 5년 지났고 자녀는 없다. 맞벌이를 해서 생활비는 각자 부담했고, 공과금만 남편이 통장에서 자동이체 해왔다. 그렇게 지내다가 1년 간 내가 직장을 못 다녔는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빚이 생겼었다. 다시 직장을 잡아 그 빚을 겨우 갚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실직해 또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또 나 몰라라 해 내가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더니 이혼을 요구해왔다. 내가 대답이 없자 남편은 컴퓨터 등 주요 물건들을 챙겨 집을 나갔다. 남편이 계속 이혼을 요구해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40대 남성)

늦은 나이에 만난 여자와 알고 지내다 상대가 임신을 해서 결혼하게 되었다. 모아둔 재산이 없어 어떻게든 잘 살아 보려고 나는 하루 네 시간만 자며 투잡을 뛰었고 용돈 10만 원을 제하고는 모두 상대에게 주며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혼인 초부터 상대는 나 모르게 돈을 흥청망청 써댔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아 집에 들어와서는 내가 살림도 하고 아이도 돌봤다. 하루는 집에 들어왔더니 술에 취해 있어 결국 갈등이 폭발하였고, 상대가 먼저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저 내가 밀쳤더니 나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였다. 상대는 이혼하고 아이도 나더러 키우라고 하고 있다. 나도 더 이상은 혼인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거짓말’ 증가

기타사유인 6호사유 중 ‘거짓말’의 비율은 남녀 모두 2019년에 비해 2배씩 증가하였다(여성 0.7%→1.4%, 남성 0.9%→1.8%). 거짓말의 내용은 금전, 외도, 불성실한 생활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내담자들은 상대가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사소한 것에 대해서부터 거짓말을 하다가 빗이나 외도 등 더 큰 문제가 드러났을 때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태도에 더 이상은 부부로서 신뢰감이 들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거짓말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30대 여성)

혼인기간 2년 중 1년 이후부터 상대방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나에게서는 일을 한다고 하였으나 거짓말이었고, 다른 이유를 대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내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였다. 결혼 전 빚이 없다고 하였는데 결혼해서 채무 독촉장이 계속 날라 왔다. 심지어 상대방은 내 형부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려간 후 혼자 다 사용하였다. 참다못해 시부모에게 알리자 결혼 전 부모에게도 실제로는 게임, 도박 등을 하면서 사업을 한다며 거짓말을 한 후 돈을 여러 차례 가져갔으며 이혼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 더 이상은 신뢰할 수 없어 이혼하고 싶다.

● 거짓말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70대 남성)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 어제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월세가 7개월이나 밀렸다고

한다. 생활비는 모두 아내가 관리하고 있다. 아내에게 그 사실에 대해 물었더니 아내는 무조건 그런 일이 없다며 우겼다. 내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는 앞에서 확인했더니 어제 나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젊어서부터 아내는 늘 거짓말을 달고 살았다. 다른 남자와 오랜 기간 외도를 한 후 가출한 적도 있는데 늘 거짓말로 일관하였다. 결국 이혼했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여 10년 전 혼인신고하였으나 변한 것이 없어 다시 이혼하고자 한다.

남성, 6호사유 중 자녀양육갈등 증가 여성, 6호사유 중 대화단절 증가

남성의 경우 6호사유 중 ‘자녀양육갈등’을 문제 삼아 이혼 상담을 한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다(19년 0.1%→20년 0.9%). 남성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식구가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의 자녀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남편과 아이들 탓만 하는 아내의 태도에 결국 갈등의 폭을 좁힐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 6호사유 중 ‘대화단절’을 문제 삼은 이들이 크게 증가하였다(19년 0.2%→20년 0.7%). 남편이 본인의 생각을 무조건 강요할 뿐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 한 집에 살면서 대화 없이 지낸 지 오래 되었는데 평소 관심도 없던 남편이 갑자기 아이들 교육에 개입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마저 악화되었다고 호소해왔다.

● 4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자녀 양육갈등)

아내와 자녀 교육 방식에 있어 차이가 크다. 아내는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끊임없이 시켰다. 아내가 아이들과 매일 다뤘고 이로 인해 나도 아내와 계속 다투었다. 그나마 아이들이 학원을 다닐 때에는 아내도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덜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학원에 가지 못하게 되자 아

나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새벽까지 감시하며 공부를 시켰다. 아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모두 내 탓인 양 늘 얘기해왔고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공부밖에 길이 없다며 아이들을 닦달해왔다. 지켜보는 것만도 숨이 막혀 집에 들어가는 게 싫었다. 그랬더니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며 내게 폭언을 해댔다. 이혼하기로 했는데 재산분할과 양육권 관련해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 4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대화단절)

남편과는 대화가 단절된 지 2년도 넘었다. 한 집에서도 최소한의 내용만 카톡으로 대화하는데 주로 대답을 하지 않다가 화가 나면 무시하고 모욕적인 내용을 보낸다. 남편은 아이들과도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학교와 학원이 쉬어 아이들이 집에서만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아이들에게 공부를 못해 돈 아까우니 나중에도 학원에 다니지 말라고 하였다. 남편은 나를 자신에게 기생해서 사는 사람 취급하며 애들 학원 보내고 싶으면 나가 돈을 벌어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중학생인 아이들에게도 직접 돈을 벌어 쓰라고 하였다. 아이들도 상처 받아 학원을 안 다니겠다고 한다. 이혼하고 싶다.

노년 이혼상담 분석

이혼상담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령별 분석 첫 해인 1995년에는 60대 이상이 여성 1.2%, 남성 2.8%로 매우 낮았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년 전인 2000년에는 여성 4.9%, 남성 5.2%, 10년 전인 2010년에는 여성 7.0%, 남성 10.5%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더욱 증가해 여성 22.3%, 남성 43.5%를 기록하였다.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3.2배, 남성은 4.1배, 20년 전에 비해 여성은 4.6배, 남성은 8.4배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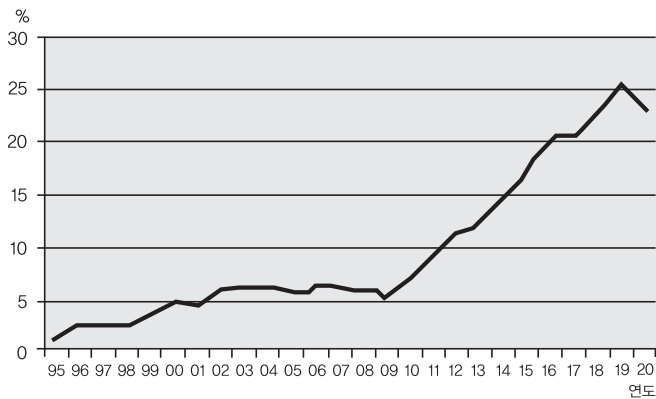
2020년도에 이혼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소를 방문한 60대 이상 여성은 총 728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563명, 70대는 141명, 80대 이상은 24명이었다. 또한, 60대 이상 남성은 총 426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250명, 70대는 157명, 80대 이상은 19명이었다. 한편, 이혼상담을 받은 내담자 중 최고령자는 남성 92세, 여성 91세였다.

6호사유 중 비율 증가 항목(2019년 →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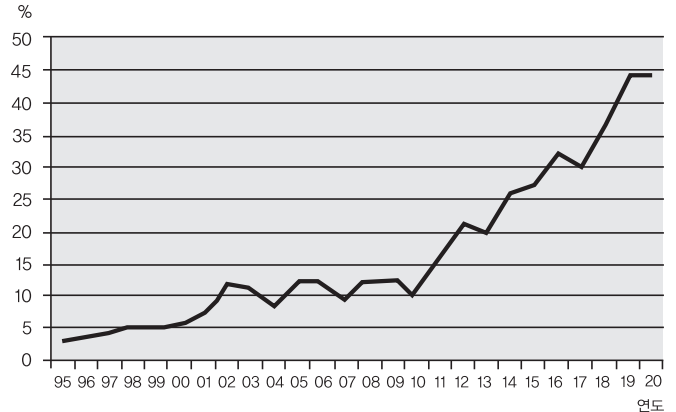
여 성			남 성		
사유	2019년(%)	2020년(%)	사유	2019년(%)	2020년(%)
거짓말	0.7	1.4	거짓말	0.9	1.8
빚	3.2	6.8	결혼조건속임	0.1	0.5
전과/복역	1.2	2.6	도박	0.3	0.9
신체적 질병	0.3	0.4	전과/복역	-	1.1
의처증	1.4	1.8	성격차이	18.5	19.7
알콜중독	4.3	4.9	정신병	0.8	1.3
무시/모욕	2.6	2.7	주벽	0.1	0.2
폭언	4.6	6.4	무시/모욕	0.5	1.1
잡은 가출	0.3	0.4	장기별거	42.5	50.1
장기별거	28.6	29.8	고부갈등	-	0.4
대화단절	0.2	0.7	쇼핑중독	-	0.2
배우자의 이혼강요	3.1	3.9	자녀양육갈등	0.1	0.9
고부갈등	0.3	0.4			

* 진한 글씨는 남녀 모두 증가한 항목임

연도별 60대 이상 여성 이혼상담 비율



연도별 60대 이상 남성 이혼상담 비율



60대 이상 남녀의 연도별 이혼상담 비율

연도	여성	남성
1995년	41명(1.2%)	15명(2.8%)
1996년	91명(2.4%)	22명(3.6%)
1997년	96명(2.5%)	25명(4.0%)
1998년	123명(2.7%)	35명(4.6%)
1999년	156명(3.5%)	36명(4.8%)
2000년	237명(4.9%)	41명(5.2%)
2001년	203명(4.5%)	48명(7.7%)
2002년	223명(5.8%)	73명(11.6%)
2003년	212명(6.2%)	60명(10.7%)
2004년	205명(6.2%)	45명(8.4%)
2005년	179명(5.8%)	53명(12.5%)
2006년	211명(6.1%)	60명(11.4%)
2007년	216명(6.0%)	68명(9.0%)
2008년	209명(5.8%)	70명(12.4%)
2009년	213명(5.5%)	79명(12.5%)
2010년	254명(7.0%)	57명(10.5%)
2011년	402명(9.2%)	122명(15.0%)
2012년	521명(11.4%)	175명(21.0%)
2013년	689명(12.4%)	272명(20.1%)
2014년	752명(14.8%)	373명(26.1%)
2015년	996명(18.1%)	524명(27.2%)
2016년	1,038명(20.7%)	626명(31.9%)
2017년	818명(21.1%)	409명(30.4%)
2018년	774명(23.5%)	495명(36.3%)
2019년	870명(25.3%)	586명(43.5%)
2020년	728명(22.3%)	426명(43.5%)

이들이 내세운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6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2호(남편의 가출) 순, 70대는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경

제갈등, 빚·성격차이 순), 1호(남편의 외도) 순, 80대 이상은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경제갈등·불성실한 생활 순),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1호(남편의 외도)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6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2호(아내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순, 7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2호(아내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순, 80대 이상은 6호(기타사유-장기별거·성격차이, 신체적 질병·무시/모욕 순), 2호(아내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순이었다.

노년층에서는 70대 여성을 제외하고 남녀 모두 1순위로 6호사유를 제시하였다.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가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위로 여성 60대와 남성 60대, 70대, 80대 이상에서는 성격차이를, 여성 80대 이상에서는 경제갈등과 불성실한 생활을 꼽았다.

한편, 70대 여성은 1순위로 3호사유인 남편의 폭력을 꼽았다. 이들 중에는 혼인 초에도 남편의 폭력이 심해 본 상담소를 방문했던 경우가 있었다. 당시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았어도 자녀가 어리고 경제력이 없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참고 견뎌왔으나 노년에까지 남편의 폭력이 계속되자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자 상담소를 방문했다고 하였다.

	여성 이혼사유 순위별	남성 이혼사유 순위별
60대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2호(아내의 가출)
	2호(남편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70대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6호(기타-장기별거, 경제갈등, 빚·성격차이 순)	2호(아내의 가출)
	1호(남편의 외도)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80대 이상	6호(기타-장기별거, 경제갈등·불성실한 생활 순)	6호(기타-장기별거·성격차이, 신체적질병·무시/모욕 순)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2호(아내의 가출)
	1호(남편의 외도)	1호(아내의 외도)

노년 여성,
자녀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능력 없는 엄마는 짐
더 이상 가정 지킬 이유 없어,
내 재산 찾고 마음 편히 살고 싶어

노년 남성,
평생 가족 뒷바라지했는데 돈벌이 못하니 외면해
한 집 살아도 남보다 못해
코로나로 인해 갈 곳도 없어

노년 여성들은 젊어서부터 계속되었던 남편의 외도와 폭행이 나이 들어서도 나아지지 않아 마음에 화병이 가득하다고 하였다. 오로지 자녀들만 보고 참으며 살아왔는데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 일에 나 몰라라 관심이 없고, 남편은 지금도 혼자 번 양 재산 가지고 유세를 하고 자녀들도 능력 없는 엄마는 짐일 뿐 재산 있는 아버지 편만 들어 빈곤감과 우울감이 크다고 하였다. 살자니 고생이고 안 살자니 창피해 오랜 기간 망설였으나 믿었던 자녀들에게까지 외면당하고 보니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내 몫의 재산을 찾고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상담을 해왔다.

한편, 노년 남성들은 평생 가족들을 위해 뒷바라지해왔으나 은퇴 후 수입이 끊기자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소외시킨다고 고통을 토로하였다. 이들은 한 집에서

식구들과 식사를 따로 한 지 오래되었고, 드나드는 것조차 몰라 가족끼리 남보다도 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집에 있으면 있는다고 나가면 나간다고 눈치를 해 어디에 있든 좌불안석이고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 다니던 곳들도 갈 수 없게 되어 불안감과 고립감이 더욱 심해졌다고 하였다.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진 지는 오래되었고 아내와 자녀들의 무시, 폭언 등을 견디기 어려워 이혼하고 싶어도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나누면 월세 보증금 걸 돈도 되지 않아 그마저도 결정이 쉽지 않다고 호소해왔다.

● 6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15년 전 집을 나왔다. 혼인 초 친정에서 도움을 받아 땅을 샀다. 그런데 그 땅이 크게 올라 현재 30억원 가량 나간다. 또한, 별거 후 내가 혼자 돈을 벌 어 내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 또한 많이 올랐다. 별거 하기 전 남편 앞으로 전세 보증금이 있었는데 남편은 이후 보증금을 빼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내 명의 땅과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해 올라 걱정이 된다.

● 6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아내와 한 집에서 남남처럼 지낸 지 10년 정도 되었다. 갈등의 시작은 어머니 부양 문제였다. 처음 혼인 후 내가 장남이었기에 어머니를 10년 가량 모셨다. 다른 형제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모든 비용을 나만 부담했다. 그 문제로 아내와 갈등이 계속 되었다.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그 일이 있은 후 갈등이 더 커졌고,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나와 아내 모두 지쳤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이혼을 원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혼 말고 다른 방법도 없다.

● 8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남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며 가출을 반복하다가 30년 전쯤 집을 나갔다. 나는 자녀 네 명을 혼자 키워 모두 결혼시켰다. 남편은 자녀들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다. 얼마 전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 건을 계기로 혹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잠도 잘 수 없다. 향후에도 또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이 된다. 이에 이 제라도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내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데 재산 분할은 원치 않는다.

● 7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혼인 후 계속 폭력이 있었다. 남편은 늘 나더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하였다. 무조건 자기 말에만 순종하라는 것이다. 이 나이까지도 내 마음대로 오고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사니 답답해 얼마 전 그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였더니 몽둥이를 들고 와 나를 때렸다. 경찰에 신고한 후 아들 집으로 왔는데 아들도 나를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이다.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받아 혼자 살고 싶은데 돈 한 톨 줄 수 없다고 한다.

● 8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IMF 때 사업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렸다. 빚 독촉을 피해 집을 나와 20여년 간 공사현장 등을 돌며 혼자 살았다. 별거 기간도 길어지고 해서 아내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아내가 만남을 피했다. 아내 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이혼 시 내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혼만 해달라고 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눈치이다. 나는 이미 기초수급자이고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이혼만 원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 내 잘못이 많기는 하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혼하고 혜택을 받고 싶다.

● 7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맨주먹 쥐고 올라와 살림을 꾸렸다. 이제껏 온갖 일을 해가며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왔다. 나는 돈을 버는 대로 모두 아내에게 맡겼는데 돈이 자주 비었다. 그래도 아내를 믿었다. 월 하다 보니 서류가 나왔는데 아내가 나 모르게 자신 명의로 집을 샀다. 나 모르게 그런 일을 도모했다는 것에 배신감이 느껴졌다. 본인은 그렇게 했으면서도 내가 뭘 하고자 하면 사사건건 반대했다. 집에 있어도 눈치 나가도 눈치였다. 애들도 모두 엄마 편만 든다. 다 싫어 이혼하고자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내놔더니 팔리지도 않는다. 가격을 낮춰 나누면 전세 거리도 되지 않는다.

기타 면접상담 분석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상담 늘어

친권자·양육자 지정 시 고려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문의 많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좀더 실질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찾아

이혼 시 상대방의 미성년 자녀 면접교섭에 대한 불안감 높아

2019년에 비해 이혼 상담이 증가(25.3%→29.0%)하면서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상담도 모두 증가하였다. 2019년에 비해 친권·양육권 상담은 1.5%에서 1.7%, 양육비 상담은 3.2%에서 4.5%, 면접교섭권 상담은 0.5%에서 0.6%로 늘었다.

이들은 이혼하면서 친권·양육권자 지정 시 고려되는 구체적인 기준,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유무, 양육 환경 등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문의해 왔다. 또한, 양육비 관련해서는 자녀수와 연령에 따른 적정 액수, 일시급 지급 가능 여부, 직접지급명령 등 양육비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한편,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측에서는 이혼 후 상대방의 면접교섭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표시하였고, 양육친이나 자녀가 거부할 경우 면접교섭시기를 늦추거나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왔다. 반면, 이혼 후 양육친의 비협조로 자녀를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에 관한 문의도 많았다.

● 친권 · 양육권 상담사례 (내담자 40대 남성)

아내가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내게 이혼소송을 제기해왔다. 11살 딸과 9살 아들이 있다. 내가 직장을 그만 둔 후 작은 식당을 냈는데 경험도 없는데 코로나19까지 겹쳐 결국 망했고 주식에도 손을 댔다가 손해를 많이 봤다. 아내가 변호사를 선임해 나도 없는 돈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전처분으로 아이들 면접교섭을 신청했는데 작은 아이는 나와 살고 싶다고 하였다. 두 아이는 나도 힘들고 작은 아이 만이라도 데려올 수 있는가?

● 양육비 상담사례 (내담자 40대 여성)

2년 전 재판이혼하였다. 당시 위자료로 3,000만원과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현재 전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남편은 이혼 전에도 수시로 나에게 돈을 가져갔었다. 도박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다. 이혼 직전에도 돈 사고를 크게 쳐서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혼을 진행했던 것이다. 현재 아이가 10살이고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 면접교섭권 상담사례 (내담자 40대 남성)

2018년 이혼하였다. 13살, 11살 두 아이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졌다. 면접교섭을 한 달에 2번, 1박2일씩 갖기로 하였다. 그동안에도 상대방은 면접교섭 때마다 다양한 이유를 들며 아이들을 잘 보여주지 않았는데 올 초부터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아예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아이들 번호로 통화가 가능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아이들도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혼 전 내가 폭력을 행사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혼 후 아이들을 만나면서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그런데도 면접교섭을 못하고 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년후견 상담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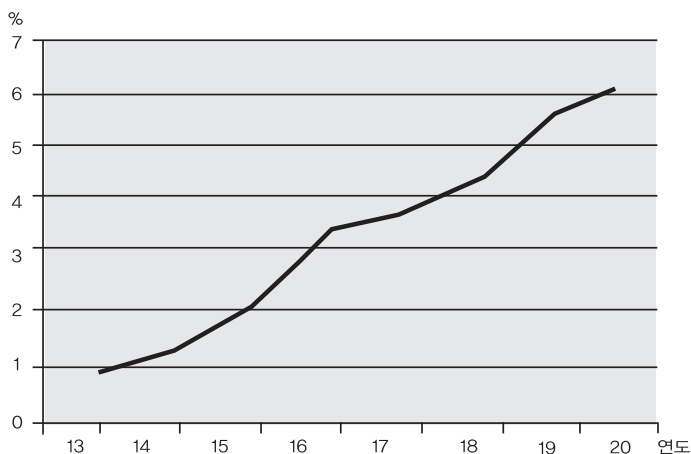
시행 첫해인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 보여
피후견인, 청구권자, 후견인 자격, 심판절차 등에 대한
문의 가장 많아
사회복지 서비스 증대되면서 적극적으로 수급비 관리
하고자 청구하는 경우 늘어
후견인 업무에 부담 느껴 사임하고자 하는 상담도 있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상담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3년에는 전체 면접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9%였으나, 2014년에는 1.3%, 2015년에는 2.1%, 2016년에는 3.5%, 2017년에는 3.8%, 2018년에는 4.5%, 2019년에는 5.7%, 2020년에는 6.1%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내담자들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불가능한 부모, 자녀, 형제의 법률행위, 재산관리, 신상보호 및 기타 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은행, 보험회사, 병원 등 각 기관에서 성년후견에 대한 안내를 받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사회복지 서비스가 증대되고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질병, 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부모나 형제의 수급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후견인 청구를 해오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문의는 피후견인, 청구권자, 후견인 자격, 심판절차, 청구서 작성 방법 등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자체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다. 또한,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해 중도에 포기했다가 후견인 선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다시 진행하는 이들의 상담도 있었고,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후견사무보고, 권한초과행위 허가 등 계속되는 업무에 어려움과 부담을 느껴 사임하고자 하는 이들의 상담도 있었다.

연도별 성년후견 상담비율



● 성년후견 상담사례 1 (내담자 70대 남성)

아내가 파킨슨과 알츠하이머로 입원한 지 5년정도 되었다. 아들만 셋을 두었고, 앞만 보고 살아왔다. 나는 돈 벌어 아내에게 모두 가져다 주었고 현재 재산은 아내 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있다. 아내의 병이 깊어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든다. 아이들 다 키워 성장시켰고, 제법 자리잡고 잘 살고 있으나 아들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다. 집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려고 하였더니 은행에서 성년후견 선임을 해오라고 한다. 내가 후견인이 되는 방법은?

● 성년후견 상담사례 2 (내담자 60대 여성)

동생이 심각한 알콜중독자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이혼 후 조카들과 지내면서 조카들이 그래도 동생을 돌봐왔었는데 한 아이가 결혼해 외국으로 나가고 또 한 아이는 지방으로 취업해서 내려가게 되어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는 상태이다. 조카들도 그간 고생이 많아 동생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동생의 후견인이 되어 동생을 돌보고자 하는데 방법은?

● 성년후견 상담사례 3 (내담자 60대 여성)

아들은 지적장애 1급으로 현재 35세이다. 내가 재혼하게 되어 아들은 어려서부터 내 친정엄마인 외할머니와 함께 지냈다. 그래서 아들의 상황에 대해 내가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아들 관련해 처리할 것들이 많고 외할머니는 연로해 내가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선임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번거로운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결국 사임하였다. 최근 아들이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가?

2020년 면접상담 사건내용별 분석표

성 별 사 건 내 용		여 성		남 성		합 계	
		사건수 (명)	백분율 (%)	사건수 (명)	백분율 (%)	사건수 (명)	백분율 (%)
가 사 13,756건 (94.2%)	남녀관계	8	0.1	13	0.2	21	0.2
	파 혼	1	0.0	-	-	1	0.0
	부부갈등	877	10.1	1,568	26.5	2,445	16.7
	이 혼	3,260	37.5	979	16.6	4,239	29.0
	사실혼해소	35	0.4	17	0.3	52	0.4
	위자료·재산분할	232	2.7	79	1.3	311	2.1
	친권·양육권	145	1.7	98	1.7	243	1.7
	양육비	522	6.0	133	2.2	655	4.5
	면접교섭권	55	0.6	37	0.6	92	0.6
	인 지	39	0.4	31	0.5	70	0.5
	친생부인	95	1.1	14	0.2	109	0.8
	친생자관계존부	250	2.9	163	2.8	413	2.8
	입양	47	0.5	75	1.3	122	0.8
	파양	14	0.2	20	0.3	34	0.2
	친양자	36	0.4	35	0.6	71	0.5
	혼인무효·취소	15	0.2	24	0.4	39	0.3
	이혼무효·취소	5	0.1	3	0.1	8	0.1
	부양관계	36	0.4	33	0.6	69	0.5
	유언·상속	921	10.6	730	12.3	1,651	11.3
	가족관계등록부	274	3.2	315	5.3	589	4.0
	성변경	141	1.6	47	0.8	188	1.3
	개명	109	1.3	53	0.9	162	1.1
	미성년후견	162	1.9	61	1.0	223	1.5
	성년후견	485	5.6	406	6.9	891	6.1
	가사절차	184	2.1	164	2.8	348	2.4
	기타	291	3.3	419	7.1	710	4.9
민 사 757건 (5.2%)	임대차	7	0.1	3	0.1	10	0.1
	부동산	16	0.2	5	0.1	21	0.2
	채권·채무	49	0.6	31	0.5	80	0.5
	파산	267	3.1	294	5.0	561	3.8
	개인회생	13	0.1	7	0.1	20	0.1
	민사절차	12	0.1	4	0.1	16	0.1
	민사기타	31	0.4	18	0.3	49	0.3
형 사 86건 (0.6%)	혼인빙자간음	-	-	-	-	-	-
	간 통	-	-	-	-	-	-
	성폭행	4	0.0	2	0.0	6	0.0
	성매매	-	-	-	-	-	-
	형사절차	16	0.2	9	0.1	25	0.2
	형사기타	30	0.3	25	0.4	55	0.4
합 계		8,684	100.0	5,915	100.0	14,599	100.0

특집 ②

다문화가정 상담통계

다문화가정을 위한 2020 영어법률상담

- 사이버상담통계 -

	상담일	상담신청인		상대방		사건분류
		성별	국적	성별	국적	
1	03.26.	남	미국	여	한국	가사/이혼/6호/성격차이
2	04.16.	남	독일	여	한국	가사/기타
3	05.11.	남	독일	여	한국	가사/면접교섭
4	05.26.	남	독일	여	한국	가사/면접교섭
5	07.15.	여	미국	남	한국	가사/부부갈등/6호/폭언
6	07.17.	남		여	한국	가사/부부갈등/2호
7	07.17.	여	미국	남	한국	가사/부부갈등/6호/폭언
8	07.21.	남	캐나다	남	미국	형사/명예훼손
9	07.22.	여	미국	남	한국	가사/부부갈등/6호/폭언
10	08.07.	여	호주	남	한국	가사/인지
11	09.07.	남	프랑스	여	한국	가사/가족관계등록부
12	09.15.	남	프랑스	여	한국	가사/인지
13	11.11.	여	미국	남	한국	가사/이혼/6호/협의이혼절차
14	11.17.	여	미국	남	한국	가사/이혼/3호
15	12.30.	여	영국	남	한국	가사/이혼/1호
16	12.30.	남	프랑스	-	-	가사/기타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권지연상담위원

2020년도 파산·면책, 면책확인, 개인회생 등 소송구조 사건 분석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법률구조 152건 분석

- 신청자 10명 중 8명이 50대 이상, 노년기의 빈곤 문제가 이미 50대부터 시작
- 신청자 10명 중 9명은 월수입 100만 원 이하로 최저 생계비조차 벌지 못해
- 채무증대 원인은 생활비 부족, 사업의 경영파탄, 기타 채무보증, 사기 피해 등의 순
- 지급불능이 된 원인은 원금과 이자 등 원리금의 수입초과, 급여 등 소득의 감소, 실직, 사업의 폐업, 입원 등의 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등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지난 15년간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사건 법률구조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본소의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사건 소송구조는 2006년 60건으로 시작하여 2012년 90건, 2014년 97건, 2016년 149건, 2017년 154건, 2019년 143건, 2020년 152건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소송구조대상자는 본소를 직접 방문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신용회복위원회, 금융복지상담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시설 등과 연계하여 빈곤·저소득·소외계층 및 노숙인 등의 신용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개인 채무의 문제 중 하나는 근로 의욕을 상실시키고, 소득이 채무의 한 달 이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채권기관들의 추심으로 인해 계좌가 출금정지 되는 경우도 빈번하여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자포자기하여 근로를 포기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거나 노

숙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때 과도한 채무의 면책이 채무자가 사회로의 복귀와 가정의 회복을 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본소의 법률구조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우선 사건의 분석에 앞서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개인회생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면,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절차 후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법원이 재판으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제도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의 법률상 여러 제약이 따르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 퇴직이 될 수도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사정은 파산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불이익은 면책결정으로 소멸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스스로 면책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복권(復權)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파산자로 남게 된다.

한편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신청과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지는 않는다. 다만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3~5년 동안 소득의 일정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즉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고,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의 채무 한도 제한이 있다.

본소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개인파산 및 면책과 개인회생, 면책확인까지 총 152건의 신용회복관련 소송구조를 진행하였다. 이하에서는 상담 내용과 파산면책신청서, 법원의 결정문 등을 토대로 신청자의 일반적 특성과 파산신청 당시 상황, 파산을 신청한 채무의 액수 및 그 발생경위, 그리고 사건의 결과 등을 분석하였다.

소송구조 사건 분석

152건의 소송구조 사건을 살펴보면, 그 중 개인파산 및 면책이 146건(96.1%)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회생 5건(3.2%), 면책확인 1건(0.7%)이었다.

〈2020년 개인파산 및 면책 등 대상 사건〉

구분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면책확인	합계
사건 수 (건)	146	5	1	152
백분율 (%)	96.1	3.2	0.7	100.0

1. 신청자의 일반적 특성

(1) 성별

신청자의 성별은 여성이 77명(50.7%), 남성이 75명(49.3%)로 근소한 차이지만,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이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생활비 부족과 병원비 등으로 인해 채무가 증대되고 결국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남편이 신용불량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아내 명의로 채무부담을 늘리면서 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의 상당수는 채무문제로 인해 가정이 파탄된 경우도 있었으나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통해 가정이 안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표-1 신청자의 성별〉

구분	여성	남성	합계
수(명)	77	75	152
백분율(%)	50.7	49.3	100.0

(2) 연령

신청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70명(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50대 52명(34.2%), 40대 18명(11.8%), 30대 10명(6.6%), 20대 2명(1.3%) 등의 순이었다. 50~60대 이상의 장년층이 80.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신청자의 10명 중 8명이 50대 이상으로, 노년을 준비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빚으로 파산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노년기의 빈곤 문제가 이미 50대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파산 및 면책 등 신용회복 관련 제도 등은 경제적 갱생이 가능한 중장년층에게 신용회복 및 사회복귀, 경제활동 재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표-2 신청자의 연령〉

구분	수(명)	백분율(%)
20대	2	1.3
30대	10	6.6
40대	18	11.8
50대	52	34.2
60대 이상	70	46.1
합계	152	100.0

(3) 학력

신청자의 교육정도를 보면 고졸이 65명(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32명(21.1%), 초졸 24명(15.7%), 중졸 16명(10.5%)의 순으로 나타나 신청자 중 고졸 이상 학력의 신청자가 67.1%였다.

〈표-3 신청자의 학력〉

구분	수(명)	백분율(%)
무학	1	0.7
초 중퇴	4	2.6
초졸	24	15.7
중 중퇴	0	0
중졸	16	10.5
고	5	3.3
고졸	65	42.8
대 중퇴	4	2.6
전문대졸	1	0.7
대졸	32	21.1
대학원졸	0	0
합계	152	100

2. 신청 당시 신청인의 생활상황 분석

(1) 직업

신청자 대부분은 파산 등 신청 당시 무직(124명, 81.6%)이거나 공공근로 및 일용직과 같은 단순노무에 종사(18명, 11.9%)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것은 신청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연령과 학력을 가졌음에도 채무로 인해 자신의 전문적 기술이나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표-4 신청자의 직업〉

직업	수(명)	백분율(%)
주부	1	0.7
회사원	6	3.9
공공근로	3	2.0
일용직	15	9.9
자영업	1	0.7
농수산임목	2	1.3
무직	124	81.6
합계	152	100.0

(2) 월수입

신청자의 월수입을 보면, 월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경우(69명, 45.4%)가 많았고, 31만~100만 원 이하(56명, 36.8%), 101만~200만 원(14명, 9.2%), 30만 원 이하(12명, 7.9%)가 뒤를 이었다. 1인 가구 법정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수입 100만 원 이하의 신청자가 90.1%에 달하여 대부분의 신청자들의 경제 상태가 극도로 열악하였다.

〈표-5 신청자의 월수입〉

월수입	수(명)	백분율(%)
무, 미상	69	45.4
1~30만 원 이하	12	7.9
31~100만 원 이하	56	36.8
101~200만 원 이하	14	9.2
201~300만 원 이하	1	0.7
301~500만 원 이하	0	0.0
501만 원 이상	0	0.0
합계	152	100.0

신청자의 주거형태는 신청인 또는 가족 및 지인의 임대주택 거주(91명, 59.9%), 친족 소유 주택 거주(16명, 10.5%), 쉼터 거주(13명, 8.6%), 친족 이외 자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11명, 7.2%) 순으로 나타나 신청인이 상당히 불안정한 주거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6 주거상황별 비율〉

구분	수(명)	백분율(%)
쉼터 거주	13	8.6
신청인 또는 가족, 지인의 임대주택 거주	91	59.9
친족 소유 주택 무상 거주	16	10.5
기타	11	7.2
친족 이외 자 소유 주택 무상 거주	11	7.2
쪽방 거주	9	5.9
사택 또는 기숙사	1	0.7
합계	152	100.0

3. 채무액과 채무증대경위 분석

(1) 채무액 분석

신청자들 중 48명(31.6%)은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신청을 하였으며,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채무 36명(23.7%),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29명(19.1%)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 원 미만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신청자도 1명이 있었다. 이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남성으로 지체장애와 만성 심방세동,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어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이 가능한 채무액은 채무자의 건강상태와 근로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7 신청자들의 채무액〉

채무액	수(명)	백분율(%)
1000만 원 미만	1	0.6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22	14.5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9	19.1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6	23.7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48	31.6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	3.3
5억 원 이상	11	7.2
합계	152	100.0

152명의 신청자의 총 채무액은 무려 36,597,203,364원에 달하였으며, 최저 채무액은 8,324,325원이고, 최고 채무액은 7,341,282,277원이었다. 최고 채무액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신청인은 남편의 사업자금을 위해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 73억여 원(원금 채무: 23억여 원, 이자 채무: 49억여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1인 최다 채권자는 19명인 경우로, 남편이 희귀난치병에 걸리고 어린 자녀와 남편의 병원치료를 하면서 많은 빚

을 지게 되었다. 이 경우는 제1·제2금융권과 통신사의 통신비 미납 등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변제해 오다 둘째 자녀를 임신하면서 근로가 더욱 어려워져 파산 및 면책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표-8 채무총액 및 평균채무〉

구 분	
채무 총액	36,597,203,364 원
1인당 평균 채무액	240,771,075 원
최고 채무액	7,341,282,277 원
최저 채무액	8,324,325 원
1인 최다 채권자 수	19 명
평균 채권자 수	6 명

(2) 채무증대경위 분석

채무증대경위란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개인회생 신청의 원인이 된 채무의 발생 이유를 말한다.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주의 깊게 검토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채무가 증대하는 이유는 다양한 사유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 파산신청서에는 채무증대 경위에 대해 복수응답이 가능하다. 아래의 분석도 이를 전제로 하였다.

〈표-9 신청자의 채무증대경위〉

채무증대경위	수(명)	백분율(%)
생활비부족	108	55.1
사업의 경영파탄	37	18.9
기타	28	14.3
채무 보증	14	7.1
사기 피해	8	4.1
주택구입자금차용	1	0.5
합계	196	100.0

가. 생활비 부족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들이 채무를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108명, 55.1%). 상담 내용을 통해 보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단 신용카드를 사용한 채무자들은 부족한 카드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해 여러 장의 카드로 카드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의 할부금을 내는 방법 즉, 소위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한 동안 생활비와 카드대금의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충당하지만 결국 얼마가지 않아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나. 사업의 경영파탄

사업의 경영파탄으로 인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37명, 18.9%). 이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들 중 과거에 자영업에 종사 하던 자가 가장 많았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업으로 인해 지게 되는 채무의 경우 통상 그 채무액수가 큰 경우가 많아 신청자들이 변제에 더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 사기피해

사기를 당해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우는 총 8명으로 채무증대경위의 4.1%를 차지했다. 사기 피해의 경우 신청자들이 부동산이나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으나 후에 투자 권유자와 연락이 끊기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사례들이 많았다.

또한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대여해 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를 떠안게 된 피해사례들이 적지 않아 이러한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들의 경우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노숙생활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약간의 금전을 받고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등을 제3자에게 넘김으로써 빚을 지게 되고, 명의대여로 인해 많은 채무를 지게 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일정한 곳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재등

록하거나 실거주지에 주소를 두게 되면서 채무변제독촉을 받고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명의대여는 불법적인 행위로서 채권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후에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 또한 명의대여는 이들로부터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넘겨받은 자들이 대포차, 대포폰 등을 구입하여 범죄 등에 악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라. 채무보증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채무가 증대한 경우로 총 7.1%(14명)에 달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에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보증으로 인한 폐해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 주택구입자금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 중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채무를 진 경우는 1건(약 0.5%)이었다. 채무증대경위에서 주택구입자금의 사유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므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결국 담보 제공된 주택이 경매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이 되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지급불능경위 분석

〈표-10 신청자의 지급불능경위〉

지급불능경위	수(명)	백분율(%)
원리금의 수입초과	124	44.9
급여 또는 소득감소	48	17.4
실직	36	13.1
사업폐업	31	11.2
입원	19	6.9
기타	18	6.5
합계	276	100.0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지급불능상태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불능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는 원리금의 수입초과(124명, 44.9%), 급여 또는 소득 감소(48명, 17.4%), 실직(36명, 13.1%), 사업폐업(31명, 11.2%), 입원(19명, 6.9%) 등의 순이었다.

가. 원리금의 수입초과

원리금의 수입초과란 채무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채무자의 수입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들은 처음 돈을 빌릴 때는 원금만을 고려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이후 원금의 상환과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채무자는 원금의 상환 및 이자 납입이 채무자의 소득으로 어려워지면 보다 대출이 쉬운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제1금융권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 대출을 받았던 원금과 이자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카드 돌려막기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지급불능이 발생하면 제1, 2금융권 채권자는 부실채권을 대부업체로 매각하고, 대부업체는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를 독촉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무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나. 실직

신청자의 13.1%(36명)는 실직으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 소득이 없어짐으로써 파산 및 면책신청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 중에는 다니는 직장까지 채권자가 찾아와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급여 압류로 인해 직장에서 강제퇴직이나 권고사직을 당하고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았다. 채무상황이 열악한 채무자가 근로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더 어렵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다. 입원

파산 및 면책 신청자들의 6.9%(19명)는 건강을 잃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동안 채무 독촉과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사업의 실패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리며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밖에 당뇨, 고혈압, 디스크 등의 질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입원을 하면서 채무가 증가되어 지급불능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4. 사건 결과 분석

본 상담소가 2020년도 진행한 146건의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과 5건의 개인회생 사건, 1건의 면책확인 사건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총 152건의 사건 중 종결된 건수는 총 70건으로 이 중 파산 및 면책결정으로 종결된 건수는 총 64건, 개인회생 인가결정으로 종결한 사건은 1건, 면책확인의 소로 승소한 사건 1건, 취하 사건이 1건, 기각사건 총 3건으로 95.7%의 높은 승소율¹⁾을 보였다.

5.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 대부분은 생활비 부족과 사업경영의 파탄을 이유로 채무를 지기 시작하였고, 본인의 소득보다 매월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커져서 감당할 수 없거나 수입이 감소, 실직, 폐업하여 신용불량자가 되

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본인 명의의 급여통장을 만들지 못하여 취직을 할 수 없다거나 나이가 많고 질병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제3자의 실수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 큰 피해를 입고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들이 있었다. 이처럼 여러 사정으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는 삶의 의지를 잃고 장기간 무직상태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거나 간헐적으로 일용직 근로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다. 이들이 필요로 한 것은 극심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는 것과 압류 당할 걱정없는 본인 명의의 통장이었다.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돕는 일은 가능한 적기에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국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채무자의 근로의지와 능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작년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간소화되어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하면서 겪게되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경감되었고, 면책결정까지의 소요기간도 단축되어 채무자의 물리적·정신적 고통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재산을 형제자매들에게 은닉하고 신청하려는 사람 혹은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가장이혼 후 신청하려는 사람도 상담 현장에서 만났다. 따라서 성실하나 불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의 갱생을 위해 마련된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개인회생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사기 파산 등에는 강도 높은 처벌과 아울러 면책이 불가능하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전규선 상담위원

〈표-11 사건별 신청 결과〉

전체사건 (152건)	종결사건 (70건)	결과					승소율(%)
		파산 및 면책 결정	개인회생인가결정	승소	취하	기각	95.7%
		64건	1건	1건	1건	3건	
	진행 중 (82건)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78건	4건				

1) 승소율=(파산및면책결정+개인회생개시결정+취하)건수/총종결사건수×100 으로 계산

법률지원과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이스라엘과의 협력*

나오미 토르 박사

1월 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활동 소개와 의견교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스라엘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중재 그리고 협력가능성에 대한 대화가 진행되었다.

이스라엘 여성의 지위

920만 명의 이스라엘 인구 중 절반은 여성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오래살고(평균수명 84.8년) 더 많이 배웠다. 남성들보다 10% 더 많은 수치인, 71%의 여성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60%의 대학생이 여성이다. 여성은 남성처럼 징집되어 이스라엘 군에서 보급과 전투역할을 수행하며 직업군인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은 27.7세까지 올랐다. 유대인 여성들 가운데, 독신여성의 출산비율이 증가하고 있다(5.6%). 여성들의 장기실업률은 남성보다 낮은 30% 이하이다. 남성들과 비슷하게, 88%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행복하다고 답했다. 90%의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일에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오직 58%만이 자신들이 적당한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력한 불평등의 지표로 이스라엘 하이테크 직업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45% 더 많다.

성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이스라엘에는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사회평등부가 있다. 모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전담 자문관을 보유하고, 이스라엘 국회는 여성발전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많은 긍정적인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임금불평등은 이

스라엘 기업에서 상당한 도전으로 남아있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여성이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

남성들은 실제 폭력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많지만, 어두운 곳을 걸을 때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성희롱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2020년 이스라엘에서 21명의 여성이 살해되었고 국내 폭력 문제가 계속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중재와 대화

이스라엘은 50개의 마을과 지방의회에 중재 대화 센터가 있다. 센터의 목적은 소송 없이 합의를 통해 가족, 이웃, 소규모 거래 단위의 갈등을 극복하는데 있다. 천명이 넘는 자원봉사 중재자들이 이 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교육과 인증을 책임지고 있다. 새로운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법정 대신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과 양육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소한 3번의 중재 세션에 참여해야만 한다.

중재가 실패하고 가정법원의 절차가 필요해지면, 이스라엘 사법시스템은 금전적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법률 자문과 무료봉사 기반의 법정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많은 NGO들이 있다.

이러한 기관들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협력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번역 김미영 주한 이스라엘 대사 수석비서

* 지난 1월 5일 본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진 주한 이스라엘 아키바 토르 대사의 부인인 나오미 토르 박사가 기고한 원고이다.

나오미 토르 박사는 이스라엘 중재 대화 협회의 회장이자 유대인, 정통파, 아랍 이스라엘인들로 구성되어있는 59개 마을과 키부츠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최대 지역위원회인 마테 예후다(Mateh Yehudah) 중재센터의 소장이다.



사랑받기 원하는데 표현 하지 않아
오해 하게 되었음을 인식

사건번호 2019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1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2회,
부부상담 4회, 부부집단상담 5회 등 총 19회 실시

상담기간

2019. 7. 1. ~ 2020. 2. 4.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재혼이고 부부 사이에 1녀(6세)가 있으며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13년 연상이다. 행위자는 2018년 12월 사건당일 만취하여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와 뒤통수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부부갈등원인으로 행위자는 피해자가 이성문제를 의심하는 등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에게 집착이 강한 것을, 피해자는 행위자의 불성실함과 자신을 아내로서 존중하지 않는 점 등을 꼽았다. 부부는 상담에 대한 욕구가 강하였고, 정해진 상담계획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부부집단상담에서 피해자는 부부간 대화가 잘 되지 않고, 행위자가 말이 없는 편으로 마음에 쌓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답답하다고 한 반면, 행위자는 피해자

가 과거를 잊고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화를 회피하였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자신이 표현을 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오해를 하게 되었음을 인식하였다. 상담을 계기로 더 많이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아직 사랑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노력하면 상처가 조금은 녹지 않겠느냐고 하였으며, 피해자도 행위자가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면 바뀔 것 같다고 희망을 표현하였다.

상담기간 중 갈등이 촉발되지 않았고 폭력도 재발하지 않았다. 상담 중간점검시 향후 노력할 바로 행위자는 집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것을, 피해자는 행위자와 대화를 더 많이 할 것을 꼽았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바로 행위자는 피해자의 말투개선을,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가사에 협조할 것을 꼽았다.

상담 종결 시, 행위자는 사건당시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2~3점, 현재는 4~5점으로, 피해자는 사건당시는 1점, 현재는 2~3점으로 평가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부부간 대화가 많이 좋아졌고, 서로를 편하게 느끼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자신의 의식과 생활방식이 여전히 갈등요인임을 인정하면서 절주 등 노력을 다짐하였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고 부부 각자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여야 상호 존중감이 증대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절주노력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문제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어투가 강하고 세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 노력을 다짐하였다. 부부는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자고 향후 노력을 다짐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어떻게 할까요?



Q 저는 5년 전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전 배우자는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감안하여 당시 5

세였던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2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배우자는 이혼 후 1년 정도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아이를 돌보면서 홀로 경제활동을 해나가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전배우자가 현재 회사에 다니며 꽤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린 양육비를 지급받고, 이혼 당시 너무 적게 책정했던 양육비를 올려 받을 수는 없는지요?

A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로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자녀), 기본증명서(본인, 자녀), 주민등록등(초)본(본인, 자녀)와 양육비 지급 내용이 담긴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양육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가 있습니다.

이행명령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양육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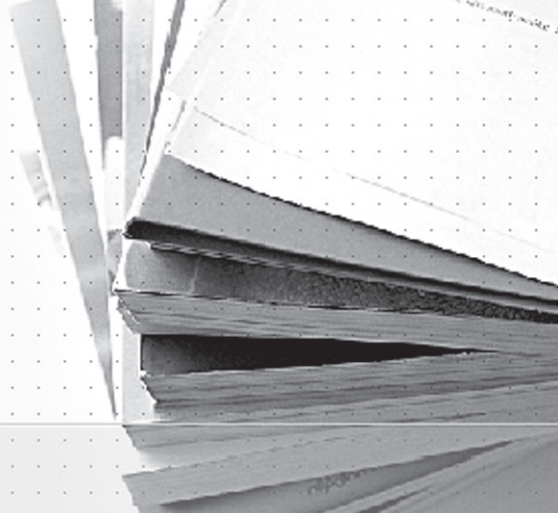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

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2021년 7월 13일 시행),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공개(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 2021년 7월 13일 시행)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2021년 7월 13일 시행).

언급하신 내용처럼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 경우도 자녀들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 지급 내용이 담긴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과 제3채무자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입증자료로 양육비 지급 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유혜경 상담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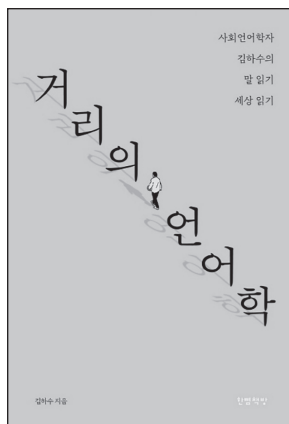


거리의 언어학

사회언어학자 김하수의
말 읽기 세상 읽기

김하수 지음

한뼌책방, 2020



스무 살의 우리들은 “드리어리 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dreary 음울한, 지루한, 황량한, 쓸쓸한’이라는 뜻을 가진 이 낱말이 우리들의 어디를 건드린 것이었다. 아침 8시에 모여 논어나 맹자 강독을 하고 미처 문을 닫지 않은 술집에서 아침 막걸리를 마시거나 아니면 부연 최루탄 가스가 번지고 있는 교문을 보면서 혹은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나 『해방전후사의 인식』같은 책을 읽고 세미나를 하면서였다. 하릴 없이 영어 사전을 뒤적이다 그 단어를 찾아내 우리에게 전파한 동기가 군대에 가고 나서도 오랫동안 우리는 말끝마다 ‘드리어리’를 붙이곤 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는 나이가 됐을 때 어느 날의 술집에서 누군가 ‘아직도 드리어리 하나?’고 해서 웃었던 기억이 있다. 서로의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나이가 되어 이제는 드리어리라고 해도 그저 웃을 뿐이지만 그 단어는 스산하고 쓸쓸했던 80년대로 우리를 데려가곤 한다. 낱말 하나가 그렇다.

대학원에 갈까, 잠깐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아마도 갔다면 고전문학을 전공 했겠지만, 문학사회학을 공부하고 싶기도 했다. 아마 사회, 사회학에 좀 더 진한 방점이 찍혀 있었을 것이다. 대체 사회와 관계없는 무엇이 있기는 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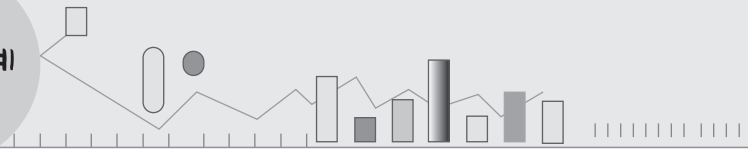
『거리의 언어학』을 쓴 언어학자 김하수는 “나의 관심은 늘 ‘언어와 그 무엇’이었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사회언어학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언어 자체에만 몰두하던 연구에서 벗어나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도록 지

평을 넓혀왔다. 즉 이 책 『거리의 언어학』은 부제가 말하듯 당대의 언어와 사회를 끊임없이 관찰해온 언어학자가 기록한 우리말과 삶에 대한 성찰이다. 지은이는 또한 “과연 언어가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늘 가슴 한쪽에 품고 말과 글, 그리고 세상을 관찰하고 있다고 한다.

언어학자에게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다. 책의 1장은 이 말 그대로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2장 ‘한국어를 생각하다’ 3장 ‘차별하는 언어, 배제하는 사회’를 통해 언어 일반과 한국어의 시대상 그리고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쉽게 그러나 가볍지 않게 풀어내고 있다. 가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말에 대한 단상이나 언어로 성차별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 고령화 시대의 언어문제로 말하기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 등은 많은 것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게 해 주었다.

한동안 우스개로 떠돌던 어떤 개그맨의 공적 영역에서의 회견문 해석이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심하게 정확해서 슬프다. 그에 의하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말하는 ‘많은 고민 끝에 용기를 냈습니다’는 ‘까먹을 줄 알았더니’이고 ‘본의 아니게’는 ‘예상과는 다르게’ 그리고 ‘누구의 잘못을 떠나’는 ‘내가 한 짓이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우리말을 해석해야 하는 시대는 슬프고, 그런 사회는 제대로 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숙현 편집부장



2021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

본소의 2021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가 지난 2월 26일 열렸다.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이번 이사회는 차명희 이사장, 박양덕, 김의재, 곽배희, 조대연, 김영옥, 김명순 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차명희 이사장의 개회, 전회 회의록 요약 보고, 감사보고,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202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기타 안건으로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개정안의 심의가 있었고 정기총회 일정에 대해서는 실무진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관련사진 2면)

2021년도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직원재교육 겸해

본소의 2021년도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상용)가 지난 2월 17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직원재교육을 겸해 이루어진 이날 회의에는 곽배희 소장을 비롯해 본소 직원들과 본소의 가족법개정자문위원인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대표 변호사),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전문센터장),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석했고 차선자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용 교수의 '자녀의 친생부인권', 배인구 변호사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차선자 교수의 '양육 결정 비혼 한부모를 위한 법적인 쟁점', 현소혜 교수의 '국제입양 절차의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관련사진 2면)

곽배희 소장, 본소 방문 이화여자대학교 김혜숙 총장, 정현미 법학전문대학원장과 환담

곽배희 소장은 2월 5일 본소를 방문한 이화여대 김혜숙 총장과 정현미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맞이하여 환담하였다.

본소는 1964년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에서 처음 법률임상교육을 실시한 이래 2013년까지 대대 「법률구조의 이론과 실습」 과목을 통하여 총 1,296명의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임상실습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봉사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10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실무교육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리걸클리닉 강의와 하계와 동계 방학 중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대 총장과 법전원장의 본소 방문은 오랜 기간에 걸친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재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 유지해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과 정 원장은 동계방학을 맞이하여 본소에서 실습 중인 이대 재학생과 법전원생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곽배희 소장과의 환담을 마치고 본소의 상담실과 강의실, 도서실 및 상담소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전시 등을 관람하였다.

본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배석하였다.



곽배희 소장,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신입 본부장 등과 환담

본소 곽배희 소장은 2월 24일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장화정 신입 본부장 및 한명애 부장, 박은혜 주임, 송혜경 주임의 방문을 받고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따른 입양 절차의 공공성 강화 및 본소가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변경, 입양 등 법률구조의 업무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담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최수진 상담위원, 김민선 변호사가 배석하였다.



본소, 새로운 라디오 광고 3월 1일부터 CBS FM에서 곽배희 소장, 새 멘트 녹음해

본소에서는 본소의 법률구조 사업을 널리 알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더 쉽게 상담소를 찾을 수 있도록 라디오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3월 1일부터 송출될 새로운 광고를 위해 곽배희 소장이 지난 2월 19일 본소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베리모멘트와 사운드 스튜디오 좋은날에서 새로운 멘트를 녹음하였다.

본소의 이번 광고는 3월 1일부터 CBS FM의 ‘강석우 아름다운 당신에게’, ‘허윤희의 꿈과 음악사이’,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에서 송출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실시

본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본소의 법률구조 사업을 이해하고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실무지식을 함양하는 학습의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가족문제와 공익,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수습을 하계와 동계 방학에 실시하고 있다. 동계방학을 맞이하여 1월 11일부터 1월 22일까지 1기 실무수습이 진행되었으며,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2기 실무수습이 진행되었다.

2기 과정에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학년 김시형 학생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진혜빈 학생이 참여하였다.

김춘봉 이사, 운영후원금 기탁

본소 김춘봉 이사(변호사)가 2019년에 이어 상담소 법률구조 사업의 운영후원금으로 일백만원을 기부하였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2. 3.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전화)
- 김진영 상담위원
2. 16. 인천1366 상담원 가족법 교육
- 김진영 상담위원

2. 17.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전화)
- 최수진 상담위원
- 2.23. 애란원-위기임신지원 상담 및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 대학생 현장실습

- 동국대학교 법학과 (1/27-2/25)
오동석, 윤진호, 이종원, 조현승
- 이화여자대학교 (1/2-2/28) 전단예, 이송현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손명진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2월 1일 한국일보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에 관해 인터뷰를 하였다. 4일에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주관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와 자택출산인 경우의 출생신고 등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10일에는 서울가정법원 이혼조정사건에 참여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서울가정법원에서 2월 4일과 5일, 18일에 이혼 등, 이혼, 이혼 등 사건을 각 조정하였다.

2021년 2월 상담통계

총 건수 5,348				
법률상담 (4,814)				
면접	전화	인터넷	지상	순회
901	3,800	104	1	8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423	32		79	
• 인터넷 정보 이용 21,359				

2021년 2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348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81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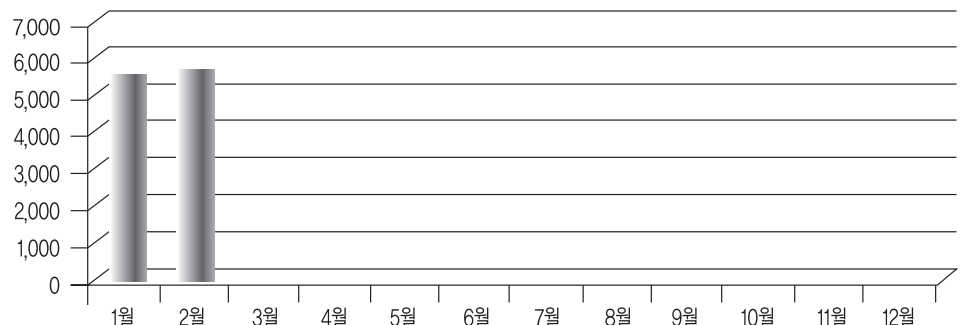
(90.0%), 화해조정 423건(7.9%), 소장 등 서류작성 32건(0.6%), 소송구조 79건(1.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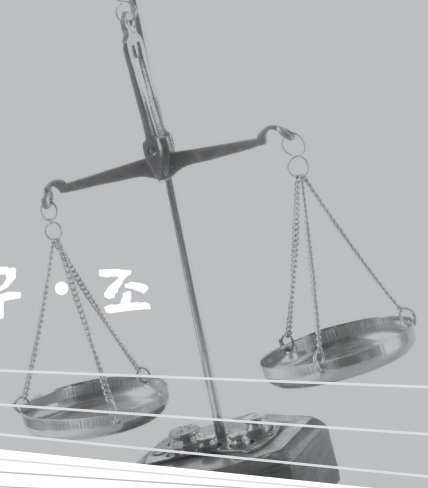
법률상담 4,814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이혼(20.6%→22.2%), 사실혼 해소(1.2%→1.4%), 친권·양육권(4.8%→5.7%), 양육비(7.4%→7.5%), 면접교섭권(2.9%→3.2%), 인지(1.2%→2.0%), 친생부인(1.0%→1.2%), 친생자존부(2.3%→2.8%), 입양(0.8%→1.3%), 부양(1.3%→1.9%), 유언·상속

(6.8%→6.9%), 가족관계등록부(3.6%→4.6%), 친양자(0.9%→1.0%), 가사절차(6.1%→6.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4%→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814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01건(18.7%), 전화상담 3,800건(78.9%), 인터넷상담 104건(2.2%), 지상상담 1건(0.0%), 순회상담 8건(0.2%)이었다.

2021년
월별
총건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사기죄로 반복되는 수감생활을 하고
폭언과 폭행도 행사한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0-64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내용 : 원고(여, 29세)와 피고(남, 30세)는

2012년 9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9세, 여 5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신고를 할 즈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사건본인1의 임신 중에 감옥에 갇고, 원고가 출산할 무렵 출소하였다. 그 후 원고는 보증금 없는 월세방을 얻어 지냈는데,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수감 생활을 5번 이상 반복하였다. 피고는 2019년 4월 출소한 이후 또다시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수배가 내려졌고, 피고는 자신은 전과가 많으니 원고에게 죄를 대신 뒤집어써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범죄행위를 계속 반복하며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모두 도박에 탕진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기본적인 생계조차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에 내몰려 원고는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분유 값과 기저귀 값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 직후부터 생계를 위해 유흥업에 종사하였다. 몸이 아파 이마저도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원고에게 피고는 영치금을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해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폭력으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2017년 무렵 우울증을 앓아 수차례 자살 기

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반복되는 범행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경제적 무책임과 도박, 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1.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0. 3. 1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사건본인 당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2, 5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과태료 결정

법률구조 2020-112

담당 : 조진형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위반(과태료)

내용 : 신청인(여, 41세)과 피신청인(남, 43세)은 2009년 6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0세)을 두었으나, 2011년 5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25일에 40만 원을 지급

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피신청인은 이혼 당시부터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었으나 이혼을 하기 위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고, 신청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피신청인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미지급된 사건본인의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후속 조치로 과태료 신청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첫 심문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였고, 법원은 과태료 낼 돈이 사건본인에게 양육비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피신청인에게 능력껏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면 과태료 처분 전 양육비를 지급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과태료 처분이 결정되었다.

결과 : 결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 1. 13.)

피신청인(의무자)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사업 및 투자실패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540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세)은 배우자와 함께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하던 중 배우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배우자와 함께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험 미숙과 광우병 사태로 인해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이후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의류 판매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외환위기로 인하여 사업이 부도가 나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신청인은 사업과 투자 실패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이는 카드 돌려막기까지 이어졌다. 신청인은 2013년경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월 70만 원씩 변제한 적도

있으나, 생활이 점점 힘들어져 이마저도 그만두게 되었다. 신청인은 6년 정도 제과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지만, 갑작스러운 뇌전증 진단으로 인해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신청인은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1. 27.)

채무자를 면책한다.

도박 등으로 채무를 지고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0-542

담당 : 황민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내용 : 원고(여, 40세)과 피고(남, 50세)은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8세, 16세, 13세)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이다. 2001년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원고와 피고는 생활비가 부족해 원고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하고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또한 원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담보 대출을 받았지만 결국 이자를 내지 못한 원고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피고는 자신의 누나와 원고에게 온갖 거짓말로 속여 3천만 원의 돈을 가져갔다. 월세를 낼 수 없어 셋방에서 쫓겨난 원고는 200만 원을 빌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였고, 학교와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으며 생활해왔다. 그런데 피고는 회사뿐만 아니라 자녀의 담임 선생님, 동네 슈퍼, 식당 등 주변인들에게 핑계를 대며 돈을 빌려왔고 이를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피고는 현재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나 연락두절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12. 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중된 생활고와 건강 이상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592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27세)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피해 22세의 어린 나이에 독립하였다. 직장을 다니며 혼자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 건강상에 여러 문제가 생겼고,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를 시작하였으나 건강이 계속 나빠졌고, 임신까지 하게 되어 소득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한 채 생활하던 신청인은 둘째까지 임신하면서 생활고가 가중되었고, 디스크 진단을 받아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배우자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번번이 구직활동에 실패하고 있어 2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신청인은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1. 27.)

채무자를 면책한다.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0-892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38세)와 채무자(남, 44세)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0세)을 두었으나, 2012년 2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년 2월부터 2030년 11월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채권자는 이혼 당시부터 2015년 9

월까지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면접교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인천지방법원 2020. 12. 8.)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고맙습니다

2021년 2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진아, 이승주, 장철진,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